

| 사진명상 |



사진 : 민병길

보디사트바

Bodhisattva 2009년 봄, 제2권 제1호, 통권 82호



Contents

- 여는 글 ___ 3 보살의 길에 들어가는 길 | 능행
경전 이야기 ___ 6 내 마음속의 여래여 | 자우
특집 ___ 9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 라제시 다사
법문 ___ 13 포교사의 역할과 자질 | 능행
의학상식 ___ 19 알아두면 예방이 가능한 병 | 김대숙
탐방 ___ 23 마음 교육의 공간 - 마하보디교육원 | 편집부
임상의 글 ___ 26 올해 내 나이 만 네 살 | 곽영애
옹달샘 ___ 28 명상만화 · 마음밭에 무얼 심지? | 최영순
___ 30 수필 · 운음표 | 정숙자
___ 32 여행 이야기 · 바운사원에 꽃핀 '크메르인의 미소' | 희유
- 정토 ● 관자재 이야기
___ 35 능행 스님과의 만남 후 | 금강지
___ 37 알을 깨고 나와 | 지담
___ 39 부처님! 감사합니다 | 황윤의
___ 41 내 생애 최고의 순간 | 한숙자
- 좋은 인연들의 이야기_43
자제병원 건립 불사 안내_45
정토마을 안내_46
후원가족이 되어주세요!_47
마하보디교육원 교육 안내/법화경 천일기도 안내_48

보디사트바: 2009년 봄, 제2권 제1호, 통권 82호, 2009년 3월 1일 발행 | 등록 울산 바01004(2008. 4. 11.) | 발행처 정토사관자재회 | 발행 · 편집인 능행 | 기획위원 강옥희 변은숙 황희순 | 편집위원 김경오 김성규 박정선 상진 장용렬 | 편집장 수필 | 주소 정토마을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17 전화 043)298-2258, 마하보디교육원 울산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전화 052)264-1007 · 0117 팩스 052)264-0209 | 편집 디자인 시시울 0502-784-7845 | 인쇄처 동진인쇄사 042)257-3515 | 제작 아띠울 | 비매품

보살의 길에 들어가는 길

청정한 삶을 위한 기도

부처님 전에 향 사루어 예배 올립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삼악도에 빠진 일체유정의 고통을 쉬게 하는 모든 선행과

고통에서 시달리는 모든 이의 안락처에 기쁨으로 함께 합니다.

깨달음의 착한 업을 쌓는 그곳에 기쁨으로 함께 합니다.

몸 가진 윤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에 기쁨으로 함께 합니다.

보호해 주시는 분들의 깨달음과 보살들의 경지에도 기쁨으로 함께 합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안락을 주시는 발심, 선법의 바다와 중생을 이롭게 하심에
기쁨으로 함께 합니다.

시방의 부처님께 두 손 모아 청하옵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중생 앞에 법의 등불 밝혀 주시길 비웁니다.

열반에 드시는 부처님께 두 손 모아 간구하오니

이 눈먼 중생을 그대로 남겨두지 마시고 영겁토록 머무시길 비웁니다.

이와 같이 행한 모든 것에서 제가 쌓은 모든 공덕으로

일체중생의 모든 고통이 완전히 가셔지기를 비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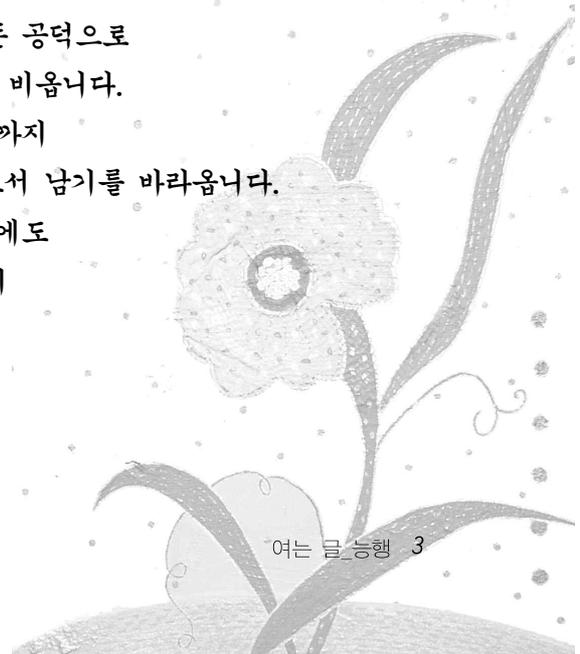
이 세상의 중생들이 병에서 완전히 나을 때까지

저는 약과 의사,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자로서 남기를 바라옵니다.

허공 끝에 이를 때까지 갖가지 모든 중생계에도

그리고 그들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제가 그들의 삶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청정한 삶을 위한 계율

■ 몸으로 지켜야 할 것

1. 살생 : 인간이나 동물을 막론하고 심지어 조그만 벌레까지라도 의도적으로 죽이지 말라.
2. 투도 : 허락 없이 남의 것을 제 것으로 만들지 말라.
3. 사음 : 정당하지 않은 성행위를 하지 말라.

■ 말로 지켜야 할 것

4. 망어 :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
5. 양설 : 뜻을 다르게 옮기지 말라.
6. 악구 : 남을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험담하지 말라.
7. 기어 : 다른 이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

■ 생각으로 지켜야 할 것

8. 탐욕 : 남의 것을 취하려는 마음을 내지 말라.
9. 진에 : 성내고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내지 말라.
10. 사견 : 편견과 왜곡된 사고, 전도된 견해를 갖지 말라.

문사수(聞思修)

- 계율을 수행하는 이유는 三門(말·생각·행동)을 잘 다스려 잘못된 행동을 피하고 항상 깨어있음으로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사항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나와 남을 해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 얼마나 능숙하게 자신의 감각을 제어하고 활용하는가를 살펴봅니다.
- 쉽 없이 깨어서 몸, 마음, 감각, 현상을 관찰하고 요동치는 마음의 고삐를 쥐어 잡는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 무지는 편견과 왜곡으로 전도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 현상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한 “진실”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분노와 증오심은 보리심을 성장시키는 것에 가장 큰 장애입니다. 보살의 길은 분노와 증오심에 당당히 맞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심은 일체의 공덕을 파괴하며 미래에 고통의 과보를 경험하게 합니다. 일상생활에 불행과 불만이 쌓이면 이내 분노와 증오심으로 변질됩니다.
-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다양한 어려움들은 참고 견디는 인욕수행을 할 최선의 사항을 만들어줍니다. 사항과 조건에 대한 불만과 불행을 느끼는 것은 분노와 증오의 좋은 양식이 되어 청정한 마음 밭에 번뇌의 잡초만 무성하여 결국엔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 어떤 경우에도 ‘화’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보살의 수행

1. 몸이라는 물질에 손님같이 왔다가는 의식, 이생을 기꺼이 중생위해 헌신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2.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악업만은 짓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3. 가없는 유정무정을 제도하고자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4. 나를 비난하고 나쁜 말로 떠들어도 그에게 선지식 대하듯 겸손하게 공경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5. 중생의 죄업과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서 비굴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6. 자신의 분노라는 '적'을 잘 다스리고 제어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7. 자신의 거친 마음을 잘 길들여 온갖 종류의 어리석음에 속지 않도록 깨어있음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8. 제멋대로 구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말과 생각, 행동을 잘 단속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9. 내 수행의 힘이 부족하여 남을 힘들게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참회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10. 무지와 망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한 영적수행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지와 망상의 속박을 보고 알아차리며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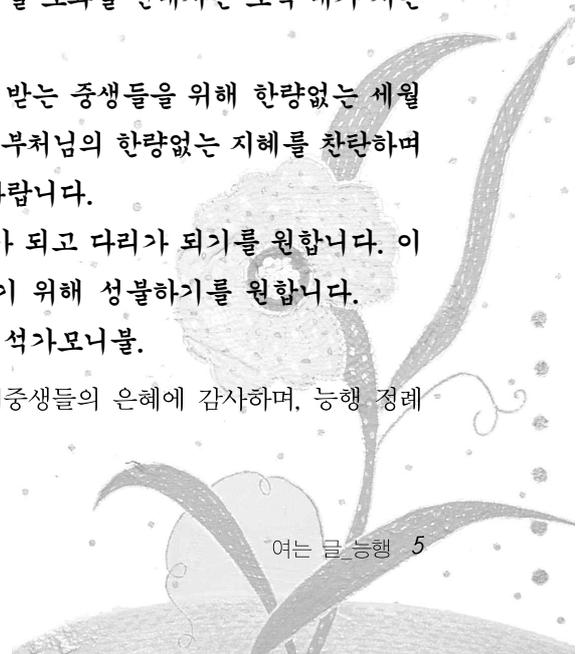
다음 생이라는 미지의 세상으로 가야 할 때는 이 세상에서 겪었던 일상적인 경험들과 현상적인 물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도와줄 안내자는 오직 내가 지은 공덕과 내가 했던 수행뿐입니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며 나도 고통 받는 중생들을 위해 한량없는 세월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찬탄하며 길을 잃은 중생을 위해 내가 안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을 건너고 싶어 하는 중생들을 위해 내가 배가 되고 다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르침 聞思修한 공덕으로 제가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해 성불하기를 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일체중생들의 은혜에 감사하며, 능행 정례



내 마음속의 여래여!

자 우 | 28기 호스피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떠나보냈을 때 많은 생각과 감정을 느낀다. 특히, 다시는 오지 못할 곳으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냈을 때. 내가 아꼈던 사람들, 어느 삶의 모퉁이에서 그리움으로 다시 기억되는 사람들. 어떤 시에서 읽은 적이 있다.

‘저승은 참으로 좋은 곳인가 보다, 사람들이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투정도 하고 알면서도 상대를 속상하게 할 때가 있다. 마음속으로는 미안해하면서, 다음에 잘 해주어야지 하면서. 하지만 그 다음이라는 것이 기약을 할 수가 없다. 근 몇 년 사이에 내 주위의 몇 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냈다. 존경하던 어른 스님들, 마흔의 나이에 떠난 도반 스님, 그리고 우리 절 부처님을 참으로 좋아했던 쉰 살의 아이 셋을 두고 2주일 전 떠난 보살님. 지금은 영정사진으로만 법당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에 떠나신 보살님의 경우는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았기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립다. 꽃을 좋아해서 늘 부처님 전 꽃 공양을 도맡아 했고, 초하루 때마다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축원을 올렸었다.

보살님은 좋은 분이었으니까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이다. 4년이라는 투병시간을 보살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모습들을 보았다. 그리고 환자로서의 삶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보현행원품을 읽으면서 더욱 그러하다.

보현행원품의 갖춘 이름은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의해탈경계 보현행원품(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으로 화엄경의 일부분이다.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으신 내용, 광대한 공덕을 설하고 있는데, 행원품에 이르러서 그와 같은 광대한 공덕을 성취할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다. 선재동자가 무상정각을 이루기로 발심하여 여러 선지식을 찾아다니는데, 53선지식을 찾아 법을 묻고 배우는 구도역정의 마지막 차례에 보현보살을 만나게 된다. 여기서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보현행원을 설하여 그의 기나긴 구도역정의 최후를 장식하고 있다. 그때에 보현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수승하신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모든 보살과 선재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여래의 공덕은 가량 시방에 계시는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불가설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 겁을 지내면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더라도 다 말씀하지 못하느니라.

만약 이러한 공덕문을 성취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열 가지 넓고 큰 행원을 닦아야 하나니 열 가지라 함은 무엇일까?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요, 셋째는 널리 공양하는 것이요, 넷째는 업장을 참회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일곱째는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요, 아홉째는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요, 열째는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향하는 것이니라.” 선재동자가 보현보살께 사투어 말씀드렸습니다.

“대성이시여, 어떻게 예배하고 공경하였으며, 내지 어떻게 회향하오리까?”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 일체 불찰 극미진수 모든 부처님을 내가 보현행원의 원력으로 눈앞에 대하듯 깊은 믿음을 내어서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하여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되 낱낱 몸으로 불가설 불가설 불찰극미진수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 허공계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 하려니와 중생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어 생각생각상속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예경원에서는 모든 일체 미진수 부처님께 예경함은 물론이거니와 부모님으로 나투시고, 혹은 형제나 착한 이웃으로 나투시고, 혹은 거친 이웃이나 대립하는 이웃으로 나타나는 자비하신 부처님께 빠짐없이 예경하겠다는 서원이다. 우리는 자칫 부처님 하면 거룩하고 멋있고 모든 능력을 갖춘 분으로만 생각한다. 병들고 고통 받는 사람들조차 부처님의 나투심임을 알 수 있다면 좋겠다. 그것은 모든 존재들 속에 감춰져 있는 여래를 볼 수 있을 때 가능하리라 본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팔이 하나 없든지 다리가 없든지 몸을 움직일 수 없든지 모든 존재들 속의 여래를 볼 수 있을 때야말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내 속의 불성을 느낄 때 나는 내가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됨을 본다. 그리고 육체의 사멸이 슬픈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일

뿐으로 몸과 마음이 조금 덜 고통스럽도록 도울 수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의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신을 떠나보냈을 때 제자들이 많이 슬펐지만 더욱 법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부처님의 열반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듯이 내가 사랑했던 보살님의 죽음 앞에서 나는 한 부처님을 떠나보낸 마음으로 더욱 견고한 신심을 낼 것을 다짐해 본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먼저 떠난 사람이 그리울 때 내 속의 여래를 만나도록 해보라고. 그러면 마음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불성을 가리고 있는 욕심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늘 새벽 피로함을 무릅쓰고 예불을 하고 108 참회를 하면서 더욱 신선한 나의 영혼의 향기를 맡는다. 부처님 옆으로 노란 튤립과 분홍 튤립, 그리고 매화나무 가지를 꽃으니 화사하다. 금방이라도 보살님이 “스님 꽃이 너무 예뻐요.” 하고 미소 지을 듯하다. 봄이 되면 매화꽃이 피듯이 보살님도 어느 세상에선가 그 착한 성품을 가지고 예쁜 꽃으로 다시 태어나시리라. 卍



(2008년 10월 11일~12일 마하보디교육원 주관으로 이루어진 '스님들을 위한 의식과 영성교육'의 내용을 지난 호에 이어 게재합니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라제시 다사 | 윈네스 유니버시티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배움을 막고 있습니까? 다음 단계로 진전하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우리를 배우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기존의 알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는 수년간 고통을 겪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싫어요. 저는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고통 속에서 안전하고 보호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접하는 것은 모르는 분야로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이전부터 알고 있는 그것이 낫다고 생각하면서 끊임 없이 그것만을 수백 번 혹은 수만 번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면 첫째, 그것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둘째, 자신이 열리면서 상처를 받기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배움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린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린 사람으로 되기 위해 노력하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그래 나는 배울 자세가

되어 있어. 그러나 이건 올바르지 않잖아.’의 상태로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놓아버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제가 강의에 앞서 제 자신에게 확인하는 것은 ‘이 내용이 나에게 진실인가 아닌가.’입니다. 만약 나에게 진실이 아닌 정보일 뿐이라면 여러분에게 영향을 못 미칠 것을 제가 압니다. 즉 모든 배움이란 기존의 것을 놓음이고 버림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느 구루(Guru)가 기(氣)와 여러 가지 세션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곳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구루의 진행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의도하는 대로 몸을 떨거나 반응을 보였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루는 나에게 더욱 정성을 쏟았지만 그럴수록 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뭔가가 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저항하는구나!’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만약 이것을 하다가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기면 어찌지?’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좋은 일이 생기면 저 사람을 힘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야 한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보게 된 순간 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흔들림을 정말 경험하면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가 내 몸에 손을 댈 때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경험 자체에 열린 상태로 경험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의 세션이나 강의에 대해 여러분들이 저항해도 거기에 나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던 저항이 된다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고 저항을 느끼는 것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자각하세요.

스승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12년간 가르쳐왔고 제 주변의 사람은 언제나 저를 존중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다해주고 그러다보니 제 자신을 보호해야 할 부담감이 더 큽니다. 커다란 이미지가 있어서 누군가 질문을 하면 “모르겠는데요.” 이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긴 하는데 그런 답변은 그냥 정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승려가 아니고 이미지를 버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지를 버린 순간부터 배움은 엄청나게 속도가 붙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겁내하는 것인가요?

오래된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고통이란 무엇인가요? 고통이란 세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 고통, 둘째 심리적 고통, 셋째 존재성(영적) 고통입니다. 이 세 가지 고통의 종류 중 가장 수월한 것은 물리적 고통입니다. 물리적 고통은 육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요소들, 예를 들면 음식, 옷, 안락함 등입니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그것이 바로 물리적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심리적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신적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납니다. 생각, 걱정, 질문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원하지 아니하던 끊임없는 답변들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불편함이 있으면 질문과 답변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심리적 고통이란 심리적 존재성을 끊임없이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심리적 고통은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납니다. 첫째는 사랑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고, 둘째는 사랑을 주어야 할 필요성입니다. 모든 정신적 고통은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심리적 고통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는데 예를 들어 누가 '예'라고 해도 상처를 받고 안 해도 상처를 받습니다. 너무 늦게 '예'라고 하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건가.'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한번은 깊은 통찰을 설명하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네, 인정할게요."라고 누군가 대답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이 빨리 이해 하길 원치 않거든요, 저는 표현할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방부터의 사랑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 있습니다. 심리적 고통에 대한 반응은 공격, 짜증, 도망, 철학(가르침) 등의 방법을 활용 하면서 고통으로부터 회피합니다.

고통을 마무리 짓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 고통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첫째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이 상대방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알지만 상처를 받는 순간 즉각적인 반응은 상대방에게 화살이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수년간 상대방 때문에 고통이 일어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통의 관점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되면 상대방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아픔뿐입니다. 그 아픔과 있으면서 그저 경험하면 됩니다. 고통 경험은 내 자신에게 온전히 몰두해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고통을 경험하면 기쁨이라는 것을 알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의 문을 여는 순간 감당하기 힘든 무엇이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고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다음에 경험해야지.' 하면서 마인드는 끊임없이 연기를 시킵니다. 고통을 미룬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행하는 최상의 위선입니다. 고통을 회피하면 일시적인 해소는 됩니다. 고통이 해소된 느낌은 "아 시원하다."이거든요. 하지만 고통의 경험은 "와! 대단하다."입니다.

의식수준에 의해서 세 가지 고통을 합해 일정 수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총 고통의 수치가 100이라면 물리적 고통의 수치가 20, 영적 고통은 40, 심리적 고통 40으로 100을 초월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의 고통의 종류는 수치가 계속 바뀝니다. 물리적 고통이

과도해지면 심리적 고통으로 넘쳐흐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픈 물리적 고통이 지나치다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괴롭다.'라는 심리적 고통으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다시 심리적 고통이 과도하면 존재성 고통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의 의미가 뭐야?' '모든 것은 텅 빈 아니야?'라고요.

세 가지의 고통의 종류는 수치가 계속 바뀝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육체적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리적 고통이 많아지면 때로는 허무와 무의미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세 가지 고통의 종류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왔다 갔다 합니다만, 세 가지의 총합계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 경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경험하면 고통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통 이상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까? 고통을 지금보다 더 경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픔을 겪을 때마다 마인드는 투사합니다. 미래에 더 커다란 고통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고통을 경험하면 안 된다고. 이 순간 고통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는 고통이 최고의 두려움입니다. 이 순간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중 한 가지의 고통이 최고로 가면 내 고통이 너무 크게 보일 뿐입니다. 고통의 총 수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직면함으로써 몇 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더 큰 괴로움이 있어.'가 큰 고통입니다.

의식이 성장하면 고통의 총 수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자의 경우 이런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고통의 수치는 깨어나지 않은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죠. 卍

포교사의 역할과 자질



능행 | 마하보디교육원장

한국 불교 포교의 현장에서 좀 더 풍요로운 포교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포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질이 필요할까.

이러한 명제는 포교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된다. 우리 모두는 삶의 순간순간에서 마주치는 고통을 극복하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인류 역사상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보시고 그곳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단 한 분의 인간은 붓다이다. 이 붓다의 가르침을 배우고 깨달은 경험을 타인에게 전하여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질을 키우는 것이 이 시대 포교사의 역할이다. 그리고 모든 불자의 역할인 것이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노력도 계속되어야만 한다.

1. 포교사의 역할

■ 포교의 정의

포교사가 무엇인지를 말하기에 앞서 '포교란 무엇인지', 즉 포교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사전적 의미의 포교(upal panam 布教 propagandism)란 '종교를 널리 펼치는 것'으로, 선교(宣敎) 또는 전도(傳道)라 쓰기도 한다.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포교법 제2조 포교의 목적에 의하면 "포교는 불타의 교법을 널리 흥포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지혜와 자비의 불타정신을 사회에 구현하여 불국정토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할 때 포교는 ‘부처님의 정법을 사회에 널리 퍼서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말씀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정법을 따르고 지켜 불국정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포교사의 의미

“승려들이여 세상을 향한 연민을 가지고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포교의) 길을 떠나라.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아라. 법을 가르쳐라. 승려들이여 그리고 순수하며 고귀한 삶을 살아갈 것을 공표하여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고 있는 중생들이 있다.”

이는 『율장 대품』에 나오는 말씀으로,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처님을 통하여 배운 말씀 즉, 진리를 펴기 위해 중생들 속으로 갈 것을 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승려’는 다른 말로는 승가(僧家 Sa gha)인데, 승가는 인종이나 국적 또는 계층과 나이의 구별이 없이 부처님께 귀의한 수행자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대적 상황에서 볼 때 이 ‘승려’를 ‘승가의 구성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면 포교의 주체자는 소위 ‘승(僧)’ ‘속(俗)’을 막론하여 ‘진리에 대한 체험과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교육을 받고 포교에 대해 뜻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 포교사의 역할

부산지역은 400명이 넘는 포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성장하고 그 성장

을 바탕으로 타인의 고통도 덜어주고 중생의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커다란 원력을 세운 사람들인 것이다. 이러한 포교사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세상을 향한 연민을 가지고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포교의) 길을 떠나라.”

위의 구절에 포교사의 역할이 모두 나타나 있다. 즉 포교사의 역할은 타인에 대한 연민과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부처님의 법을 알리는 것이다. 특히 인간에 대해서는 성별(性別), 연령별(年齡別), 직업별, 직업별, 지역별 기타 등으로 나누어 그들의 이익과 복지, 그리고 행복을 위하여 포교를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2. 포교사의 자질

■ 내적인 면

포교사는 전도의 길, 전법의 길, 포교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겐 갖추어야 할 자질이 있는데, 내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내적인 면에 있어서의 첫 번째 자질은 자신감과 더불어 스스로 도덕률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께서서는 포교를 떠날 때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자신감 즉 확신이 없으면 포교의 일선에 나서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이다. 이와 유사한 말씀은 초

기 불전인 슛타니파타 사품(蛇品)의 제3 『무소의 빨경(經)』에 강조되어 있다. 모두 40수의 시에서 우리는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을 통해 수행자가 가져야 할 ‘자신감’에 대해 부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무엇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일까? 죽음에 이르는 모든 생명체는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죽음에 이르는 길로부터 벗어 날 수 있음’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에 대한 직접적 체험’을 통한 자신감을 말한다. 이러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을 때 포교의 당위성과 목적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자신감 즉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승려들이여, 그리고 순수하며 고귀한 삶을 살아갈 것을 공표하여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순수하며 고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가 포교를 빙자하여 정법을 호도하고 훼불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선가귀감』에 참선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갖추어야 할 것에 관한 말씀이 있다. 여기서 참선이란 말을 포교로 바꾸어 그대로만 실천한다면 계율과 관련하여 당당한 포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음란하면서 포교(참선)하는 것은 모래를 찌서 밥을 지으려 함이요, 살생하면서 포교(참선)하는 것은 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며, 도둑질하면서 포교(참선)하는 것은 새는 그릇에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며, 거짓말하면서 포교(참선)하는 것은 똥으로 향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로는 ‘전문적인 면’을 들 수 있다. 사회는 분화되고 분화된 사회 속에서 개인의 특

수성이 빛을 발하는 세상에 사는 우리는 포교도 전문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나 여기서의 ‘전문’이란 우선 보편타당함에 기초를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보통은 보편통달(普遍通達)을 줄인 말로, 보통에서 통달이 나오고 통달은 전문의 깊은 뜻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보통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전문적이 될 수 없음을 뜻한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다 똑같이 보셨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근기(根機)에 맞는 법문을 하실 수 있었다. 이 시대의 포교사도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나와 다를 뿐이며, 이들 이야말로 진정 나에게 삶의 가치를 일러주는 보살’이라는 생각으로 포교를 해야만 한다.

또한 부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올곧게 전해주겠다고 하는 포교사로서의 철저한 의식을 갖고 모든 분야에 걸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포교 과정에서 쌓은 경험은 정보로서 항상 나누어가질 마음가짐을 가질 때 보편을 바탕으로 한 전문 포교사가 될 것이다.

■ 실천적인 면

아무리 내재적 가치가 고귀해도 외형화, 사회화, 현실화를 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고귀한 가치를 외형화, 사회화, 현실화시키는 것이 포교라면 그 역할을 담당할 포교사는 그를 위해 정진해야 할 것이며, 그 정진을 최선의 결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전문화(專門化)가 되어야 한다.

실제 생명체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나 그

본성을 둘러싸고 있는 외형은 자주 바뀐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에 따라 포교의 방법을 달리하며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모든 일을 대하고 경험을 쌓아 나간다면, 어느 순간 많은 포교사들은 자신들이 깊게 관심을 갖고 있는 한두 분야 또는 더 많은 분야에서 뛰어나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실천적인 면에서의 전문화인 것이다.

그래야만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교사는 스스로가 포교에 관한 경험을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험을 기록하고 다른 포교사와 공유하며 토론을 통해 또 다른 대안을 도출해내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포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포교사는 전체 속에서 자신을 한두 분야로 특화시켜 효율적으로 포교할 수 있는 전문화된 포교사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자질을 바탕으로 포교를 펼 때 진정한 포교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병든 이에게는 병든 원인 즉 인과(因果)를 당당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불교도로서의 자신감을 갖고 환자를 대할 때는 '환자 스스로의 생명은 짧은 것'을 알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진정으로 포교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포교 현장의 문제와 해결방안

■ 다양한 문제들

포교의 현장은 분화된 현대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한 현실문제가 늘 기다리고 있다. 경찰문제, 가정문제, 성폭력문제, 사회문제, 청소년문제, 학교문제, 계층 간의 문제, 직업적인 문제, 군대문제, 종교문제, 노인문제, 빈부문제, 죽음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지경이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 앞에 포교사들은 어떠한 해결도구를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현재 가장 피부에 와 닿는 현실문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우린 대통령도 경제 대통령을 뽑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경제가 도탄에 빠지니 사회는 물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개인까지 무너지는 험한 상황이 되어 있다. 이럴 때 포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러나 현실문제 중에서도 가장 궁극적인 것은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욕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발달한 사회의 모습만큼이나 사람들을 질병과 죽음으로 내모는 많은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내몰리는 중생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내 고통처럼 여기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포교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도구는 무엇인지 진정으로 고민하고 도구를 갖추어 실천할 때 중생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해결 도구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즉 많은 지식과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언양의 마하보디교육원에서는 3년 전부터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육 내용을 보면 '호스피스교육'과 상담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상담교육'이 있다. 호스피스교육이란 개개인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죽음과 타인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숙고해 가는 수행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상담대학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 상담기법과 접목시켜서 자신의 경험과 예고, 업식과 생각으로 타인을 대하지 말고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차원 높은 수행을 경험해서 성숙된 사고를 가지고 타인을 대면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질을 성장시키는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여 '업이다, 인과다, 귀신이 붙었다' 등의 상담이 아니라 진정 타인 자신이 되어 문제를 파악하고 깊이 생각하여 고통을 덜어주고 진심으로 문제를 대할 수 있는 자세를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 참여하는 지역과 사람을 보면 부산, 울산 등 경남 일대의 참여 숫자가 가장 적다. 그 중에서도 포교사가 전체 참여자 중 가장 적으며 어쩌다 한두 명에 불과하다. 어디에 가서 포교를 하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삶과 죽음을 진정으로 깊이 통찰하고 검토하며, 내적인 수행을

성장 시키는가.'이다. 더 나아가 '타인의 고통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가.'하는 것이다.

포교의 현장에서 중생을 도와줄 수 있는 각자에 맞는 도구를 지니고 고해의 바다에 서야만 진정 중생들을 피안으로 건너게 해줄 수 있다. 이 시대의 포교사인 우리는 각자 어떤 수행의 도구와 수행력을 가지고 신도를 대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즉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가?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도구를 가지고 지금 이시대의 현실에 다가가야 한다. 그래야만 날로 증가하는 자살률과 암발생률, 이혼률 1위 앞에 선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삶을 살면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삶을 살겠다는 원을 세우고 전법의 현장에 뛰어들 포교사가 없다면 불교의 포교는 요원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인구 1위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죽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도록 고통스럽고 고해의 바다임을 의미한다. 좀 더 발심하여 사람들이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뜻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만큼 스님들의 삶도 바빠지는 것 같다. 여기에 포교사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진다. 모두가 바쁘고 힘든 삶을 살지만 부처님의 제자로서 굳건한 삶을 살기 위한 목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라. 수없이 죽어가는 중생들을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내야 하며, 내 가족과 도반, 이웃이 죽음을 겪을 때 도와

주어야 한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담 기법을 배우라.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현대 심리학을 접목시킨 상담기법을 배워 중생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도와야 한다.

셋째, 삶과 수행을 직결시켜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라. 수행과 교육을 통해 삶의 관점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관점은 내 삶의 행복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풍요롭게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며 또한 고통을 받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존재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행복해지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을 도와주는 일을 통해 너와 내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卍

-채록: 희유, 24기 호스피스

알아두면 예방이 가능한 병

김대숙 | 부산대학병원 수간호사

□ 찌찌가무시병

개요

리켓치아 찌찌가무시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걸리게 되며 급성으로 발생하는 가을철 전염병이다.

주요 증상

- ▶ 전신 권태감이나 식욕부진 등의 전구 증상과 함께 두통, 오한, 발열 및 국소 림프절 종창 등을 동반하여 잠복기는 10~12일 정도이다.
- ▶ 진드기가 문 곳에 피부 궤양이나 가피형성을 볼 수 있으며, 중증의 경우 치명률은 40%에 달하지만 조기에 치료하면 완쾌된다.

감염 경로 및 특성

- ▶ 관목 숲에서 살고 있는 매개충인 진드기의 유충이 지나가던 사람을 물어서 걸리게 된다.
- ▶ 급성열성질환에서 벌레에 물린 자국이 피부에 있고 소속 림프절이 커져 있고 발진이 있으면 의심해야 한다. ▶ 잠복기는 10~12일 정도이다.

예방 요령

- ▶ 유행 시기에 관목 숲이나 유행 지역에 가는 것을 피한다.
- ▶ 밭에서 일할 때는 되도록 긴 옷을 입고 야외활동 후 귀가 시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목욕을 한다. ▶ 들쥐, 집쥐 등 질병 매개 동물을 없애도록 노력한다.
- ▶ 환자를 격리시킬 필요가 없으며 개발 사용되고 있는 백신은 없다.

□ 유행성출혈열

개요

- ▶ 가을철 발생하는 전염성질환이며 비교적 강우량이 적은 건조기에 군인, 캠핑이나 등산, 낚시를 즐기는 사람 등 주로 야외 생활자에게 많이 발병한다.
- ▶ 발열, 두통,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독감과 혼동할 수 있다.
- ▶ 추석 성묘 후 독감 증상을 보이면 전염병을 의심하고 즉시 의료기관에 가야 한다.

주요 증상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전신 증상이 있으며 발열기, 저혈압기, 감노기, 이뇨기, 회복기 등 5단계를 거친다.

감염 경로 및 특성

- ▶ 들쥐나 집쥐의 배설물이 건조되면서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된다.
- ▶ 늦가을(10~11월)과 늦봄(5~6월) 건조기에 많이 발생한다.
- ▶ 감염 기회가 많은 젊은 연령층 남자가 잘 감염된다.
- ▶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일은 없다. ▶ 잠복기는 9~35일(평균 2~3주) 정도이다.

환자 관리 방법

- ▶ 접종명 : 유행성 출혈열 백신. ▶ 접종권장대상 : 성인 중 야외생활이 많은 사람.
- ▶ 접종방법 :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후 12개월 뒤 1회 접종.
- ▶ 접종비용 : 7,500원/회당(약품 구매가격에 따라 비용 변동).

□ 발진열

개요

발진열은 *Rickettsia typhi* (R. mooseri)에 의한 급성 열성 전염병으로 감염된 쥐벼룩 (*xennopsylla cheopsis*)에 의해서 전파된다. 임상 증세는 발진티푸스와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 증세가 가볍고 사망하는 예는 거의 없다.

3~5일이 되면 반점상 구진이 복부, 흉부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특이요법은 없고 대증 요법과 tetracycline, chloramphenicol과 같은 항생제가 사용된다. 계절적으로는 가을철에 많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쥐의 서식이 많은 지역(농촌, 곡물창고 등)에서 발병이 잘 된다.

감염 경로 및 특성

일반적으로 집쥐 (*Rattus rattus*, *Rattus norvegicus* 등)가 서식하는 대부분의 주택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중류 이하의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식료품이나 곡물을 취급하는 상점 주위나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예가 많다.

□ 식중독

개요

오염된 음식물 섭취 후 두드러기, 발열, 구토, 설사 복통 증세나 신경계 또는 전신 증세를 나타내는 질병을 말한다. 집단 발생 가능성이 높아 단체 급식 등 음식 관리에 많은 주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예방법은 없고 자주 손을 씻는다.

주요 증상

발열, 구토, 설사, 쇠약감, 탈수증 등이 나타나고 3-5일간 지속된다.

감염 경로 및 특성

- ▶세균성 식중독은 특히 여름철 세균에 오염된 음식의 섭취로 발병한다.
- ▶자연성 식중독은 독성이 강한 버섯, 어패류 등의 섭취로 발병한다.
- ▶화학적 식중독은 메틸 알콜, 비소 유기인, 유기수은 등 유독물질에 오염된 식품의 섭취로 발병한다. ▶잠복기는 2시간에서 20시간이다.

예방 요령

- ▶냉장식품을 과신하지 않는다. (식품은 10℃ 이하의 냉장고에 단기간 보관한다.)
- ▶과일, 채소류, 육류, 어패류 등 식품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조리하고 즉시 먹는다.
- ▶조리 전 손을 깨끗이 씻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식품취급을 하지 않는다 .
- ▶도마와 행주는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햇볕에 말려 물기를 없앤다.
-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 독소가 있으므로 맛이 조금만 변해도 버린다.
- ▶도시락은 서늘하게 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먹도록 한다.
- ▶식사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예방 접종 시기

- ▶설사하는 환자는 격리시켜야 하며, 알려진 환자와 의심되는 환자의 장 배설물은 따로 처리해야 한다.
-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경우에는 적어도 2주일간 관찰해야 한다.
-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한다.

□ 유행성 각·결막염

개요

유행성 눈병의 원인 바이러스는 아데노 바이러스(유행성 각결막염)와 엔테로바이러스(아폴로결막염) 2종이며, 유행성 눈병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환자가 사용한 물건 등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고,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 잠복기는 아데노바이러스는 12시간에서 3일, 엔테로바이러스는 5일에서 12일이며, 주요 증상은 눈에 통증 현상이 나타나고 눈꺼풀이 부으면서 결막이 충혈되고 심할 경우에는 출혈이 생기기도 한다.

주의 사항

- ▶되도록 유행성 눈병 환자와의 접촉을 삼가야 한다.
- ▶가족 중에 눈병 환자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수건과 세숫대야를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 ▶기타 눈병 환자가 만진 물건을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외출 시에 손을 자주 씻고 눈을 비비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안과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인플루엔자(독감)

개요

감기와 달리 전염력이 매우 강하며 갑작스런 고열과 전신쇠약 등의 증세가 있으며 노약자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폐렴, 심근염 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증상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 콧물, 기침, 발열, 인후통, 결막충혈 등의 상기도감염, 인후염, 결막염, 모세가지관염,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한다. 근육통, 요통 등을 수반한다. 소아에게는 합병증으로 중이염과 폐렴이 흔하다.

감염 경로 및 특성

환자의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 호흡할 때 비말에 의해 전염되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공기 전염도 되며 잠복기는 2~3일이다. 전염기간은 임상 증상이 나타나서부터 3~4일간이다.

예방 요령

유행 시기에는 가능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피한다.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안정을 취하는 일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특성

인플루엔자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나 바이러스균주의 항원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백신개발이 어렵고 예방효과도 적은 편이다. 면역 지속 시간이 3~6개월에 불과하므로 매년 반복하여야 하며 반드시 유행이 있기 전에 접종하여야 한다.

예방 접종

- ▶ 접종명은 인플루엔자백신이다.
- ▶ 접종 대상은 6개월 이상 노약자이다.
- ▶ 접종 방법은 6개월 이상 8세 이하 어린이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 ㄸ

마음 교육의 공간-마하보디교육원

-28기 호스피스 교육 / 행복수업

편집부

동안거 기간을 뜨겁하게 달구었던 마음 교육의 두 가지 코스가 마하보디교육원에서 있었다.

28기 <호스피스 교육>은 지난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중심으로 타인의 죽음과 삶까지도 함께 동행하는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션(Session)을 마치면 나눔의 시간을 갖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삶과 죽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2월 1일부터 21일까지 정토마을과 꽃동네에서 이루어진 임상실습의 여정은 죽음에 직면한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간적 고뇌의 문제를 통찰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삶과 죽음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28기 수료식을 맞이한 교육생들의 얼굴엔 삶과 죽음을 이해한 듯한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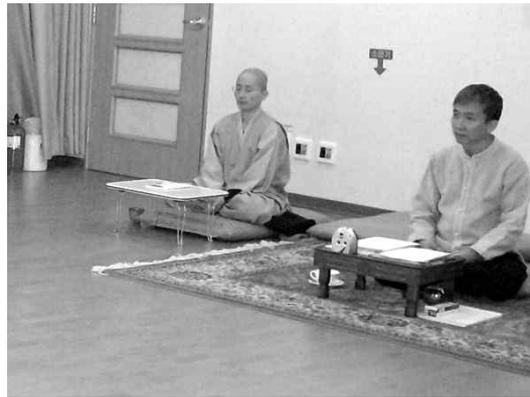


호스피스 교육 중

마하보디교육원을 뜨겁게 만들었던 또 다른 교육은 1월 29일부터 2월 3일(5박 6일)까지 혜봉 거사님과 함께한 명상수련인 <행복수업>이었다. 이 명상수련의 특징은 신체적인 반응과 감정들, 아주 사소한 기억마저도 나를 찾게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통찰하게 하는 독특한 명상이었다. 기존의 명상에서는 번뇌가 무시되거나 억압의 대상이었다면, 이 수련에서는 번뇌가 오히려 초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행복수업 중



다음 글은 이 명상수련을 마친 후 남긴 한 교육생의 재미있는 소감문이다.

행복행성으로의 우주여행/참가자 신선영

이런 여행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떠나온 곳도 떠나갈 곳도 모두 다른 21인이, 기나긴 우주의 시간 중 지구 시간으로 2009년 1월 29일, 광대한 우주 공간 중 지구별 대한민국 마하보디교육원에서, 5박 6일 동안 '행복'이라는 별로 향해할 우주선에 탑승하기 위해 하나들 모여듭니다.

그들은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 앉아 이륙 준비를 합니다. 여행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단정하게 앉아 고요히 자신의 숨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잠 속으로 상념 속으로 망상 속으로 빠져 길을 잃을 때마다 이 우주선의 혜봉 선장님은 고요히 손가락을 뻗어 이들이 갈 방향을 알려줍니다.

여행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뽀족하게 솟아오르기도 하고 가벼이 너울대기도 하고 한없이 가라앉기도 하면서 수많은 행성을 스쳐갑니다. 익히 잘 아는 행성도 있고 전혀 알 수 없는 행성도 있고 낯설었지만 곧 알게 되는 행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빅뱅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그 폭발의 순간이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선장님의 지시만 유념한다면 곧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던 불행이라는 이름의 행성들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금씩 행복해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폭발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그때 그곳에서는 21개의 우주가 들썩거렸습니다. 卍

올해 내 나이 만 네 살



곽영애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2월로 접어든다. 2006년 2월 15일은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다. 담당의사가 이제는 암세포가 없다면서 지금부터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살라며 진단 내려준 날이다.

2005년 2월 16일. 다시 돌이켜 생각하기도 싫은 날이다. 나이 든 여성들이 예사로 생각하는 자궁근종 수술을 겁없이 하면서 '암'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도 난소와 임파까지 번진 자궁내막암 말기였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평소 건강하게, 그리고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밝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나로서는 청천벽력이었다.

암환자 모두가 그렇듯 나도 내게 왜 암이 왔는지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분명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울삼성병원에 입원하여 1차 항암치료를 하게 되었다. 주위 환자들을 보니 대부분 항암 치료를 여러 차례 하였지만 재발하는 것을 보면서, 무작정 항암치료만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았다. 인과응보를 생각했다. 원인을 풀어야 치료도 잘 되고 다른 환자들처럼 재발도 안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백일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했다. 아니 애원했다. 지금 생각해도 6개월이라는 시한부 환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준 남편과 아들, 딸, 사위가 한없이 고맙다.

혼자 멀리 떠나고 싶었다. 가족과도 멀리, 아무도 오지 않는 곳으로 떠나고 싶었다. 선택한 곳이 제주도, 그곳에서 나의 참회기도는 시작되었다.

수술 후 바로 항암치료한 몸을 안고, 밤에는 괴로워 잠을 못 이루 두 다리를 벽에 붙여 세우고, 머리는 북쪽으로 두고 누워서 밤을 새우고 또 새웠다. 어느 날 갑자기 능행 스님께서 제주도 사는 신도들과 함께 오셨다. 너무나 반가웠고 감사했다. 스님께서는 “도진윤 보살이 왜? 하필 암이야.” 하셨다. 눈물이 흘렀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설움이 북받쳐 눈물이 한없이 흘렀다.

스님께서는 다음에도 오셔서 가사를 수하시고 허공을 바라보시며 간절히 염하시며 붉은 가사를 나에게 덮어 안수기도를 해주셨다. 그 포근함을 지금도 가슴 가득 안고 산다. 암이 아니었다면 누리지 못할 행복이었다. 스님의 간절한 기도의 원력과 나의 참회가 부처님께 전해지길 발원했다. 등 뒤로는 한라산, 앞은 탁 트인 서귀포 바다. 괴롭고 외로운 자신과의 투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행복한 출가였다. '암'이란 놈이 왔기에 가능한 출가였으며 나의 진참회 기도 기간이었다.

백일기도 회향을 마치고 서울 병원으로 다시 올라올 때는 휠체어에 의존해서 비행기를 탔다. 그 후 4개월 동안 휠체어에서 일어나질 못했다. 배에 복수가 차고 폐에도 물이 찼다. 눕지도 못했다. 무작정 떠난 환자가 다시 병원에 왔을 땐 병상이 없어서 가족들이 정말 애를 많이 태웠다.

매일 밤 응급실을 오가며 너무나 괴로워서 부처님께 '오늘 밤에는 저를 부처님 곁으로 데려가 달라.'고 매일 발원하며 지내는 동안 기적은 일어났다. 의사들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부처님의 가피가 나타났던 것이다. 암세포가 없어져야 복수가 말라서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 복수가 저절로 세 번씩이나 흘러내렸던 것이다. 항암 2번째, 3번째, 4번째까지 꼭 항암약 투여했을 때만 새벽 인시쯤에 복수가 흘러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의사도 이런 예가 없었다며, 복수가 어떻게 흘러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외진을 해보아도 원인을 찾지 못하겠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암세포가 없어지면서 말라 줄어드는 복수가 나의 경우에는 흘러내렸던 것이다. 네 번째 항암치료 후 검사를 하니 암의 수치가 정상인 수치로 나왔다. 폐트 사진을 찍어 확인하니 몸에 있던 암세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암이 없어졌던 것이다. 어찌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라고 하겠는가. 나의 작은 기도를 들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올해 내 나이 만 네 살이 되었으니, 이 몸을 잘 보살피고 사랑하여 그 사랑이 주위 모든 이에게 전달되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회향해야겠다. 나의 괴로움에 함께 정성을 다한 나의 남편, 그리고 사위, 아들, 딸, 외손녀들의 사랑에 정말 감사한다. 또 많은 기도를 해주신 친척들과 여러 도반, 형님 아우들에게도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평소에 좋아하는 금강경 사구게 한 구절을 외워본다.

일체위법 여몽환포영/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나무석가모니불/나무석가모니불/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卍

【명상만화 <연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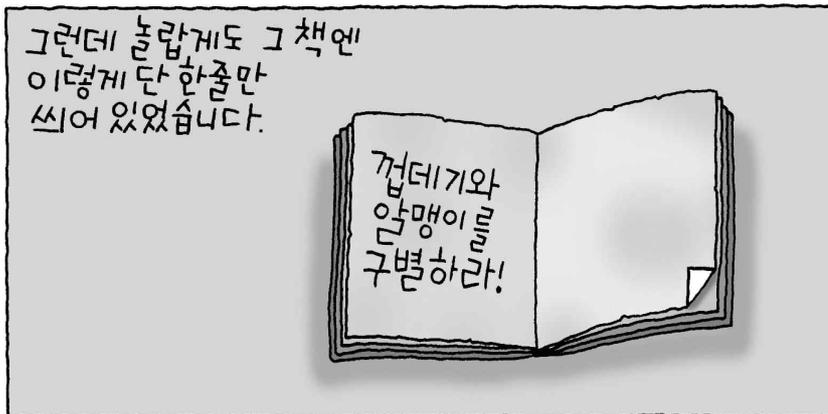
마음밭에 무얼 심지?

최영순 | 만화가

스승님이 아끼신 책 한 권



아무리 많은 것을 읽고 의뢰도
그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었습니까?
단 한 마디의 말, 단 한 구절의 가르침만 알았다
그 때 또 행하면 큰 깨달음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와 혀



진짜 사나이는 사납지 않습니다.
 진짜 잘 싸우는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맞붙지 않습니다.
 진짜 사람을 잘 부리는 이는 언제나 그의 아래가 됩니다.
 —노자



최영순은 강릉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서 소설을 공부했다. 철들기 전에는 학교 대신 강릉 남대천 하구의 역새밭에 누워 있거나 어두컴컴한 싸구려 극장에서 하루를 보내곤 했고, 철든 후엔 '자비원'이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길 잃은 아이들과 함께 둥굴며 한 시절을 보냈다. 1999년부터 본격적인 만화 작업을 시작했다. <불교신문> <스포츠신문> <굿데이>를 비롯한 여러 신문과 <현대모터> 등 사보에 만화를 연재했다.



명상만화 | 최영순 글·그림 | 『마음밭에 무얼 심지?』(해토, 2003)에서 부분 옮김.

【수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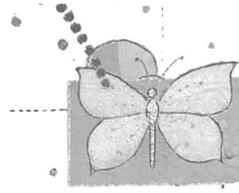
온음표

정숙자 | 시인

태양이 비치는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 자연이다 여기기로 했다. 시골 태생인 탓도 있지만 남편(군인)을 따라 전방으로, 오지로 전전하는 사이 나는 그야말로 자연사랑의 줄개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김제만경 너른 들판은 내 태가 묻힌 고향이려니와, 부산 강릉 속초 삼척 묵호 정동진 안목 경포대 삼포 물치 간성 거진 화진포 비무장지대에 이르기까지 동해안 구석구석 정붙이며 살았으니 왜 아니 그렇겠는가. 관광객으로서는 결코 만나볼 수 없는 매일 매일의 파도, 골짜기를 비집고 풍풍 솟아오르던 옹달샘, 아스라이 절벽에 피어난 나리꽃... 그 도드라진 풍경들을 뒤로 하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서울행을 결정했지만, 나는 누누이 스스로를 위로해야만 했다 '태양이 비치는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 자연이야.'라고.

내 이삿짐 속에는 유독 빼놓을 수 없는 물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호미다. 호미는 흙을 가꾸는 도구이니 백지에 글을 심고 가꾸는 우리에게 빗댄다면 붓이나 다름없다. 나는 지금도 하루 한 번, 적어도 삼사일에 한 번은 호미를 든다.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 영산홍이나 장미, 붓꽃 아래 파묻어준다. 내 집이 아파트 3층이긴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손수건만한 꽃밭이 건물 밑동에 딸려 있으니 말이다. 아무리 도심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호미를 댈만한 곳은 기다리고 있기 마련. 나비는 꽃들의 친구. 달팽이는 잎사귀를 빛내는 친구. 한여름에 왔다가 반짝 사라지는 그들을 대할 때마다 나는 즐거워진다. 작년 이맘때 외출에서 돌아오다가 꽃밭 가장자리에 나풀나풀 돌아난 질경이 한 주먹을 뜯어 씻고 씻었다.

엮어놓으려는 자배기 밑바닥에 컴퓨터 한글 10호 크기의 이용자만한 달팽이 한 마리가 까뭇하니 붙어있는 게 아닌가. "아이고, 이것야! 이파리 뒤쪽에 묻어왔구나. 으깨지지도 떠 내려가지도 않았다니! 용하다 기특하다 미안하다 아가야!" 나는 일회용 투명컵에 질경이 두어 잎과 몇 방울의 물로 습기를 조절한 다음 달팽이를 옮겨주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였다. '당장 꽃밭으로 데려다 줄까? 아니야, 내일 보내도 괜찮을 거야.' 결국 "하룻밤 묵어도 괜찮겠니?" 달팽이와 의논 끝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다. 느릿느릿 움직일 수밖에 없는 순둥이. 하지만 무작정 컵의 주둥이까지 기어올라 습기라곤 없는 책상에 떨어졌다가는 큰일! 구멍 하나 뺨 뚫린 뚜껑을 덮었다. '얘야, 산책 다녀올 동안 가만 있거라. 안심해도 돼.'



달팽이 컵을 침대 곁에 세워두었다. 잠들기 전 나는 달팽이에게 말을 걸었다. “이게 내 방이야. 우리 부부는 각방을 쓴단다. 애들은 다 결혼했고 분가했어. 내 방은 담배냄새가 안 나. 그러니까 네 건강을 해치진 않을 거야. 사람들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두는 것도 재밌잖니? 그럼 잘 자라. 널 아침에 보자. 안녕~.” 이튿날 조반을 먹고 컵을 살폈더니 컴퓨터 한글 10호 크기의 마침표만한 똥이 서너 점 눈에 띄었다. 이파리에도 송송 구멍이 뚫려 있었다. 마음 놓고 자고 먹고 쉰 것이다. 나는 달팽이를 칭찬하며 여기저기 구경시켰다. “이건 책꽂이야. 책이란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훌륭한 물건이지. 아참, 그리고 나는 시인이란다. 내 이름? 좀 있다가 알려줄게. 여긴 부엌이야. 여기는 베란다. 그리고 이건 컴퓨터...”

그리고 벌써 일 년이 지났다. 물론 나는 그를 제자리에 잘 데려다주었다. 그날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한잔의 커피타임으로 영원한 작별을 나누었다. 그는 찬바람이 불면 어느 별인가로 돌아갈 것이고, 태양이 가까워져 다시 돌아온다 해도 어찌 알아볼 수 있으리오. 나는 다만 모든 달팽이한테서 그를 만날 것이다. 아니 ‘달팽이’라는 말만으로도 그가 떠오른다. 관계맺음이란 그런 것일까. 그에게 내 꿈과 슬픔 한두 가지를 말했던 것도 같다. 인간의 삶도 그리 완벽하거나 화려한 게 아니라고, 그네의 삶을 위로하려는 뜻이기도 했다. 오래전 내 자연론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나보다. 태양이 비치는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 자연이다. 아차! ‘좀 있다가 알려’주기로 한 내 이름 어찌지? 이제야 생각나다니 이걸 어쩐다지? ㄸ



정숙자

- 1988년 <문학정신>으로 등단
- 시집 『열매보다 강한 잎』 외
- 산문집 『밝은음자리표』

【여행 이야기】

바운사원에 꽃핀 ‘크메르인의 미소’



희 유 | 24기 호스피스

‘서산에는 백제인의 미소가 있고, 앙코르에는 크메르인의 미소가 있다!’

캄보디아 하면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영상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다. 킬링필드, 깡마른 새까만 아이들, 판잣집 난민촌, 그리고 지뢰에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 그러나 이런 캄보디아에 세계 최고의 유적지 중 하나가 있으니 그곳이 바로 ‘앙코르 유적’이다.

처음 앙코르에 가면 우선 사원의 그 거대함에 놀란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요, 세계 3대 불교유적 중의 하나란 것이 과연 헛된 말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유적의 신성이 살아있음에 거듭 놀란다. 시엔립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반짝이는 눈망울과 환한 미소를 받아보면 이 도시 위에 내려진 부처님의 가피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알게 된다. 유럽인들의 말처럼 앙코르는 ‘이미 사라진 고대의 도시’가 아니다. 신전은 아이들의 놀이터로, 그곳에 깃들여 사는 사람들의 생업터로 생명이 살아 숨 쉬고 있다.

지금의 베트남 쪽에 자리 잡고 있던 ‘참죽’의 침략을 ‘톤레삽호수의 결전’의 승리로 이끌어 크메르왕조의 최대 위기를 구해내고 왕이 된 ‘자야바르만 7세’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하였다. 이전에 신봉하던 힌두교의 사상, 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심점으로 선택된 것이 ‘불교’다. 그래서 ‘자야바르만 7세’는 과거의 도시를 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그곳을 ‘불교’라는 색채로 물들였다.

그러나 알다시피 ‘힌두교’에서 붓다는 ‘남’이 아니다. 힌두인들은 ‘붓다’를 ‘비쉬누’신의 9번째 아바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왕은 국교를 불교로 바꾸고 불교식 사원을 건설했지만, 그곳에는 힌두교의 사상과 문화가 함께 녹아있다. 이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 힌두교와 불교가 하나로

녹아있는 유적이라!

우리나라 도시의 골목골목에 ‘만(卍)’자를 걸고 있는 곳의 보살님(?)들은 불교도인가? 무속인인가? 그 구분이 모호한 것처럼 ‘앙코르’에서 힌두교와 불교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전체 속의 하나로 볼 때 비로소 그 문화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앙코르를 관광하는 불교인들이 혼란을 느끼는 대목 중의 하나일 것이다.

관광객들은 ‘자야바르만 7세’가 건설한 신도시 ‘앙코르톰’의 남문에서부터 놀라움을 일으키게 된다. 다리 좌우로 늘어선 석상들과 그 얼굴의 표정, 그리고 그들이 옆구리에 끼고 있는 뱀[나가]의 형상이나, 도시를 휘둘러 흐르는 해자의 물줄기, 남문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사면 불의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보아왔던 유적지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문화적 충격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의 관점을 바꾸기에 충분할 만큼 신선하다. -우리의 성문 위에는 당연히 누각이 있어야 하니까.

남문머리를 장식한 사면불은 약간 네모난 얼굴형에 두툼한 입술, 그리고 그 입술꼬리에 웃을 듯 말 듯한 미소를 머금고 관광객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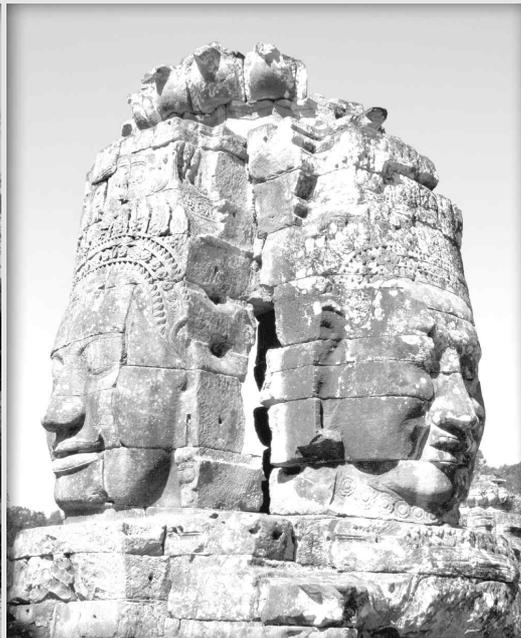
이제 남문을 지나 곧게 난 길을 통하여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이 왕국의 중심사원인 ‘바론사원’ 앞에 서게 된다. 바론사원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멀리서부터 점점다가 사원의 모습이 똑똑하게 보이게 되면 사원 곳곳에 낮익은 얼굴들이 잔뜩 진을 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어? 어디서 본 얼굴이지?”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건만 전혀 낯설지 않은 얼굴! 그러나 쉽사리 생각나지는 않는다. 그



바론사원 남문



바론사원 인물상

얼굴 그 표정이 시엔립의 거리와 앙코르사원 곳곳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깨닫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

왕조의 위기를 구하는 해법을 새로운 종교 ‘불교’에서 찾고자 하였던 ‘자야바르만 7세’는 일단 이 사원 1층 외벽의 사방에 자신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싸우는 과정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는데 사용하였다. 그것도 부조조각으로. 그래서 사원을 한 바퀴 돌고나면 크메르 대히역사극을 한편 본 듯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왕은 자신을 하늘의 왕에 비유하여, 땅에서 최고의 정치를 구현하는 ‘신왕(神王)’으로 표현하여 불교에서 지향하는 최고의 군주상인 ‘전륜성왕’을 자칭하였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얼굴을 모델로 한 얼굴상을 조각하여 바온사원의 3층 곳곳을 장식하게 하였다. 그 얼굴은 관세음보살상을 의미하며, 사원의 어느 곳에서 보아도 마주할 수 있게 54개의 얼굴을 만들었지만 현재는 37개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원에 들어서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친근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놀라고, 그 얼굴의 표정이 똑같지 않음에 또 놀라게 된다.

자애로움이 넘치다가도 슬퍼 보이고, 그러다 노여워도 보이고 기쁘게도 보이는 것은 중생들의 모든 감정을 그대로 받아내는 것 같다. 관세음보살의 원력은 중생들의 마음을 모두 품어 안는 것이니, 전쟁을 치른 백성들이 받아내야 하는 고통을 어루만져주고자 했던 왕의 마음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심과 겹쳐져서 지금 내게까지 전해져 오는 것 같다. 이곳에 있으면 종일을 있어도 지루하거나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서 떠나고 싶지 않고, 갔다가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이유인 것 같다.

충남 서산에 가면 기울어진 바위 한쪽을 쪼아 만든 ‘마애삼존불’이 있다. 이것이 처음 발견 되었을 때 어느 학자가 그 자연스럽고 친근한 미소에 놀라서 ‘백제인의 미소’라고 했던 한마디가 그대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곳이다. 그 앞에 서면 우린 가장 보편적인 백제인의 얼굴이 저렇게 생겼을 것이고, 그 얼굴에 피어오르는 미소가 저럴 것이라고 짐짓 상상을 하게 된다.

불교가 퍼져나간 곳에는 예외 없이 불상이 있는데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곳에 살며, 그 불상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감정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즉 보편적으로 불상은 당시 사람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얼굴 모습과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야 바온사원을 장식한 수많은 얼굴이 낯익은 이유를 알겠다. 이곳 캄보디아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과 미소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원의 얼굴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듯 종교란 사람들의 가슴으로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희망과 기대를 줄 때 그 생명력이 영원하고 본래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리라. 바온사원의 미소에서 나는 캄보디아인의 희망의 미소를 읽는다. 卍

능행 스님과의 만남 후

금강지 | 25기 호스피스(후원자)

2002년 우리 가정은 어렵다 못해 온 가족이 함께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였다. 그 무렵 정토마을을 알게 되었다. 후원이나 봉사는 감히 생각지도 못할 그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 하고 죽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그냥 일을 저질러 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지 않았으면 아마 후원이나 봉사는 평생 못 하고 살지 않았을까 싶다. 주위에서는 나를 보고 미쳤다면, 먹고 죽을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후원이며 봉사냐고 했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없을지도 모른다.

2002년 추석, 딸을 데리고 정토마을에 간다고 하니 남편과 아들은 아무 말 안 하고 갔다 오라고 하였다. 정토마을에 도착하니 능행 스님과 연호 스님, 해인 스님이 함께 공양간 앞뜰에 앉아 계셨다. 울산에서 왔다면서 인사를 하니 음식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며 잘 왔다고 했다. 공양간에는 서울에서 온 성혜 보살과 만덕월 보살, 그리고 대전에서 온 인행심 보살 세 사람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연호 스님께서 “울산 보살님, 음식 잘할 줄 아세요? 한 번 해보실래요?” 하시기에 공양간 주변을 둘러보고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고 나서는 요리할 것이 무엇인지 재료를 달라고 했다. 연호 스님께서 울산 보살이 오니까 무언가 잘 돌아갈 것 같다고 하셨다. 인행심, 성혜, 만덕원, 그리고 딸 종경이와 함께 여러 가지 반찬과 맛있는 가지각색 송편을 만들었다. 그때 함께 일을 하신 해인 스님, 연호 스님, 자연돌이(정선) 거사님, 향운 거사님, 떠돌이 방지 거사님이 생각한다.

그렇게 2002년 추석은, 조상님들께 차례는 못 올려 죄송하기는 했지만, 정토마을에서 환자와 가족들과 함께 3박 4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정토마을에 그 인연으로 가끔 한 번씩 봉사자로 가곤 하던 중 2004년 부처님 오신 날 남편에게 정토마을에 함께 갈 것을 청했다. 흔쾌히 내 청을 받아 늦은 밤 출발해서 새벽녘에 정토에 도착할 수 있었다. 능행 스님께서 반겨주심에 남편은 한눈에 반한 모양이었다. 그 이후로는 정토마을에 가는 것을 이해해 주었다.

2008년 7월 생계의 문이었던 식당일을 그만두고 평일에 봉사하러 갔더니 능행 스님께서 가게는 어떻게 하고 왔느냐고 하시기에 그만두었다고 말씀드렸더니 공양간 일을 맡아 달라고 하셨다. 호스피스 교육도 받으라고 하셨다. 그 동안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받지 못했기에 이 기회에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25기로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음성 꽃동네로 임상실습을 다녀온 후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내 몸 건강하고 정신 건강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내 가족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도 알게 되었다.

2008년 9월 1일에 드디어 언양 관자재의 공양간 식구가 되었다. 처음 공양간에 들어가니 참으로 어수선하고 분주해서 어디에서부터 정리를 해야 할지 암담했다. 지금은 정리가 잘되어 큰 일을 치러도 무서울 것이 없고 누가 봐도 물건 찾는 일이 쉬워졌다.

공양간에서 함께 고생하는 원만성 보살과 혜림 보살의 노고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처음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조화롭고 웃음꽃이 피는 공양간으로 변신했다. 하루하루 조왕대신께 반배 올리며 언양 관자재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따듯한 공양 드실 수 있도록 향 사루며 부처님께 기원한다. 卍

알을 깨고 나와

지 담 | 28기 호스피스(봉사자)

내가 정토마을에 봉사하러 가려고 마음먹은 것은 강원 졸업 후 선방을 다니면서, 정진하는 것만이 공부에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면서 두 철째 선방결재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옛 어른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부가 안 될 땐 복을 지어야 한다는 말씀이 생각났다. 어느 곳이 적당할까 하다가 인터넷을 검색하여 정토마을을 찾아오게 되었다.

정토마을을 찾던 날 비가 내려서 차량이 밀리는 바람에 어둑어둑해져서야 도착하게 되었다. 도감 스님으로부터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날 저녁에 스님과 함께 병실에 기도하러 들어가게 되었고, 병실에는 여섯 명의 환자가 계셨는데 아주 위급한 환자 두 분이 계셨다. 의식이 없는 환자 앞에서 기도하며 조금이라도 나의 기도가 도움이 되려면 일념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일념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 그것들이 다 나에게 향하는 법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죽음에 대해서 평소 “난 죽음이 무섭지 않아.”라고 말했었는데 그것은 막연한 생각이었을 뿐 막상 임종 전에 처해 있는 분들 앞에 서보니 나의 내면에서는 직면하고 싶지 않은 저항감과 두려움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힘들게 병과 투병하며 나날을 보내는 분들에 비교한다면 내가 힘들어 하는 것들은 모두가 행복에 겨워하는 투정이고 사치스러움이라는 생각이 들며 부끄러웠다.

5일간 있으면서 병실 청소와 법당기도, 병실에서 기도를 하며 두 분의 임종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고, 그분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 드리는 것 외엔 특별히 도움이 될 것이 없음에 안타깝고 무력함을 느꼈다. 정토마을 원장 스님께서 하고 계시는 수행 모습을 바라보며, 난 얼마나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괴로워하고 있는지, 수행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수행자답지 못한 생각과 이기심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부끄러웠다.

이 인연을 이어 지금은 정토마을에서 정진하고 있으며, 얼마 전엔 호스피스 교육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한 인간의 내면을 깨우기 위해 얼마나 세심한 배려 속에 교육이

진행되는지 절로 따뜻함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다. 또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 나는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있는지 또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지금은 정토마을의 한 식구가 되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정말 미약하지만 나의 힘이 필요하다면 이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야 할 때임을 절실히 느낀다. 이젠 더 이상 주저하고 미적미적하며 책임지지 않는 일만 하려는 나에게서 벗어나려 한다. 卍



부처님! 감사합니다.

황윤의 | 성남고등학교 교사(후원자)

2008년 지난해는 숨을 몰아쉬면서 지낸 시간들로 메꾸어졌다. 아마도 1인 10억은 했으리라. 가정주부, 학교 교사, 교육청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부센터장, 대학교 강사, 기본교육과정 직업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집필 등이 나의 숨을 가쁘게 몰아갔다.

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는 발달장애학생의 교육으로 본격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사회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직업전환교육센터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훈련시킨 학생들을 적성에 맞는 사업체에 배치시켜 취업에 도달하도록 지원한다. 여름 띄약별에 더위를 싫다하지 않고 만났던 사업주들은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장애학생들과 함께 하기를 희망했다. 그로써 나의 일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듯 사업체 현장실습을 추진했다. 그 결과 아이들은 노인전문병원 외 다수의 사업체에서 일자리를 찾았고, 사회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장애인들도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교과서 집필은 5월부터 12월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국가에 반납하고 1박을 하며 공동 작업을 했다. 전국의 발달장애학생들이 몇 년을 보고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한치의 실수도 허용할 수 없고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작업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었기에 가능했다. 숨을 고르면서, 혼신을 다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었다. 적은 원고료가 나온다고 한다. 지금까지 내가 월급 외에 번 돈이 너무 아까워서 쓸 수 없었던 경우가 이번까지 두 번 있었다. 첫 번째의 돈은 학교 수업 후 2시간 30분 걸려 도착한 대학교에서 6시간을 쉬지도 못하고 열강을 해서 벌은 경우이다. 끝날 즈음이 되면 말이 목으로 기어들어가 기진맥진을 실감하게 했다. 어느 때는 체해서 아침, 점심을 굶고 강의를 하고 집에 와 쓰러지다시피 한 적도 있다. 이렇게 소중하게 번 돈으로 49세에 대학원 첫 번째 등록금을 내었다. 그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직업재활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주었다. 두 번째는 적은 원고료이지만 어디에 쓰라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궁금했다. 집필을

하면서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정토마을을 알게 된 것은, 4년 전 남편이 정토마을을 다니며 봉사하는 분의 소개로 받아 본 『섬섬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 않게』라는 능행스님 책을 읽고 난 후였다. 일요일에 학생회 법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토마을에 갈 수 없었고, 후원자로만 만날 수 있었다. 책자를 받아보며 스님들과 여러 신도들의 소식을 들었다. 학생회 법회는 여러 상황으로 할 수 없게 되어 마무리를 하고 일요일에 시간을 낼 수 있었기에 한 걸음에 정토마을을 찾았다. 능행 스님을 만나 뵙기는 어려웠으나 스님의 향기만으로도 기뻐했다. 매월 행훈 스님을 찾아뵙며 능행 스님께서 일구시는 자제병원에 관심이 쏠렸다. 어떻게 그 큰일을 해결하실까? 전국의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능행 스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100억의 자금을 어떻게 만드실까가 큰 관심이었다. 한 줄기 강한 빛이 정토마을을 감싸며 꼭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했다.

퇴근 후 집에 와 보니 『보디사트바』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반가웠다. 봉투 속에는 한 장의 안내문이 들어있었는데 자제병원 설립의 기금 마련을 위해 법화경 천일기도를 봉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아! 스님께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가 가장 큰 힘이라고 말씀하셨고, 역시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마무리하시는 스님의 행(行)하심에 감탄하며 가슴이 울렁거렸다.

우리 가족 네 명의 기도비로 어렵게 벌은 교과서 원고료를 내자고 하는 남편의 제안에 또 한 번 감사하며 기쁨에 환호했다. 두 번째 소중한게 번 돈을 이렇게 가치 있게 쓰도록 기회를 주신 능행 스님께 감사를 드린다. 2008년 12월 31일 시상식에 참석했다. 경기 교육 대상을 받았다. 수상의 기회를 주신 부처님께 감사를 드린다.

매월 열리는 천일기도에 경기도 성남에서 언양까지 천리를 기쁘게 생각하며 동참하려고 마음을 다져본다. 卍

황윤의

- 성남공업고등학교 특수교육부장 교사
- 경기 광주하남교육청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부센터장

내 생애 최고의 순간

한숙자 | 27기 호스피스

인생 반세기를 살아오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전쟁 끝자락에서 태어났기에 모두가 살아가기 힘든 시절이라 생각했고, 특히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하고 싶었던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던 시절을 살았다.

결혼 후에도 바쁘게 살다보니 내게도 생애 최고의 순간이 있었던가 싶다. 다행히 두 아들만큼은 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주어서 아이들 문제로는 속상한 일은 없었지만, 큰아들이 대학을 마치고 고시문제로 7년이란 세월을 넘기다보니 내 삶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다.

기독교에서 불교로 마음을 바꾸기까지는 갈등이 많았다. 하지만 자식 때문에 무너져가는 나를 발견한 후 결심을 하게 되었다. 마침 그때 관자재불교병원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고, 처음 뵈는 능행 스님의 모습에 반했던 것이다. 칼날같이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보시는 그 종교의 힘! 스님 앞에만 서면 양과를 벗기듯 무거운 죄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어던지는 느낌이 들었다. 따스하시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전율을 느끼게 되었고, 포근히 안아주시는 그 품안에서 어머니를 기억했다. 따스하고 포근한 동시에 웬지 서러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와 울음이 터지기도 했다.



“자식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란 말씀에 초라한 나의 지나간 삶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에 시작한 기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들어서는 초입이었다. 불교의 초년생인 내가 “예.”라고 대답은 해놓고 걱정이 되어 며칠 밤을 뜬눈으로 새우기도 했다. 하지만 능행 스님께서 큰 배려와 길을 열어주셨기에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100일 기도, 49일 기도, 21일 기도, 7일 기도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 년 동안 오로지 부처님께 매달렸다.

법당에 들어서면 눈물이 앞섰다. 게다가 제일 먼저 몸마장, 인간마장, 돈마장들이 차례차례 나를 시험했다. 이 몸을 몇 번이고 쓰러뜨릴 뻔도 했지만, 간간히 들리는 능행 스님의 “보지 않아도 기도하는 모습 다 알아요.”라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곤 했다.

2008년 11월 26일, 아들의 행정고시 최종합격 소식에 정신이 아뜩해지며 꿈인가 생시인가 하여 살을 꼬집어보기도 했다.

역시 불교를 선택한 것이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다. 앞으로는 보살도의 길을 행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것이며, 능행 스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게 됨을 부처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卍

좋은 인연들의 이야기

2008년 12월 1일~2009년 2월 28일



정토마을 후원가족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새로 후원가족이 되신 분들

강인구 고두봉 광기수 광병호 광희만 권정혜 김관예 김광배 김광섭 김국찬 김동구 김동희 김만수 김미나 김병욱 김부경 김상직 김석중 김순미 김순철 김양순 김영이 김용두 김용숙 김월순 김은희 김장홍 김재현 김정월 김한기 김향화 김현규 나광태 노종란 도성환 류옥연 맹일수 묘 진 문차범 박광식 박수경 박숙영 박영완 박윤자 박정세 박정환 박철교 박효현 방수영 배재얼 상락사 서지연 선덕화 상대경 손동주 송태기 신동림 신상현 안봉원 양연옥 양인석 양정우 양지우 양택길 엄세훈 연제균 유덕영 유미의 유용기 유주연 윤정연 윤희중 이경애 이대웅 이수일 이은선 이임환 이종택 임민숙 임인덕 임현수 잔병국 정경자 정봉화 정석환 정지원 조관보 조명숙 조영아 조창산 창덕암 최단비 최동은 최성덕 최영임 한상원 현재규 현종오 흥란기 황규동 황진우 황태영 강철수² 경숙⁶ 김명숙⁵ 김명숙⁶ 김연희² 김영수² 김용선¹ 김은숙⁴ 김인숙² 김정옥³ 김종숙³ 나경숙² 박은주² 신선자² 이경자³ 이귀자² 이길자² 이동훈¹ 이미정³ 이상선² 이수환² 이승주² 이은주³ 이진화² 이현숙⁴ 이혜경² 조숙희² 홍성정² (주)진두 능학스님 대광스님 대기스님 덕인스님 도우스님 보정스님 서원스님 선정스님 흥진스님 동락관음회 수기유통 윤희희명 이일진행 지하이엔

♥ 福돼지 회향하여 주신 분들

사랑 가득 담아 정성으로 福돼지 회향하여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진주 강성구 권명숙 금강지 김무선 김예진 김인규 도경희 류혜원 박남신 배영순 성 현 송양자 양준석 윤지환 윤현주 윤희을 이강일 이성규 이연순 이영경 이정민 익 명 정명용 정정화 조민영 최영동 최우석 함월사 자인스님 지성스님 광무애관 김천반야정사

작은 몹에 사랑의 양식 가득 채워주실 분을 위해 福돼지 분양은 항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사무국으로 전화 주십시오.

좋은 인연들의 이야기

2008년 12월 1일~2009년 2월 28일

♥물품으로 후원하여 주신 분들

구정연 권명숙 김광습 김미영 김봉관 김선이 김순임 김양순 김영범 김영순 김응운 김이자 김철완 김향자 노종관 대덕사 대법사 무량수 문을순 민정원 박상신 배영자 배영화 배유경 상낙사 송태기 신희철 안은현 안효선 오양순 유재영 이경수 이금재 이동수 이동순 이명순 이영애 이정숙 이효경 임민숙 장용열 전동환 정명희 정성용 정자현 정정화 청량사 청목월 청연암 최병태 최준하 최혜영 하양순 한대현 한숙자 홍미자 수초스님 자인스님 종찬스님 대전청과 선재동자원 수기유통 영화약국 파워2000 현강농원 60년취들세상 굿모닝부동산 해인사 보연암 환자보호자 한화L&C부강공장봉사팀

♥몸소 방문하여 사랑을 실천하신 분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랑을 나눠주고 가신 봉사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용석 강혜정 고재호 권정혜 김민기 김주성 김태기 김희진 무량수 배건우 서수연 서지연 신선영 아미고 양용환 원정연 이정우 이혜림 정가영 정념희 정문귀 정보영 정지황 진 중 최경옥 최재진 황혜숙 성환스님 혜도스님 문사수법회 밀알정도 반아라마 용화봉사단 한물사랑회 60년취들세상 R&B미용실 아미타호스피스회 정향숙팬카페모임 한화L&C부강공장봉사팀 현대자동차불자회

정토마을 환우들과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실 일반, 단체, 장기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사랑을 몸소 실천하실 자원봉사자께서는 오시기 전에 미리 사무국으로 접수하시면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정토마을 환우들께 필요한 물품

뉴케어(일반식), 욕창방지용품, 쌀, 보리, 잡곡, 견과류

☎후원물품 계좌 : 농협 401120-51-017456 (재)정토사관자재회

☎후원 문의처 : 정토마을 사무국 043) 298-2258

전문호스피스병원! 서민들을 위한 종합의료복지타운!

자제병원 건립 불사

인간에게 더 이상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와 상실을 경험하게 하고, 그 고통과 슬픔은 환자의 삶의 질을 피폐화시키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앗아가 버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몸소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건립될 자제병원은 전문호스피스센터로써, 또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종합의료시설로 맑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불교의료복지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건립계획

-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現 마하보디교육원 동일부지 내)
- 건축면적 : 지하 1층, 지상 4층(약 1,138평)
- 주요시설 : 일반재가병동, 승가요양병동, 중환자병동, 재활물리치료실 등
- 의료서비스 : 전문호스피스센터, 가정호스피스, 지역사회 서민들을 위한 외래진료, 재활치료, 가정방문간호 등

건립후원 안내

후원계좌 ☎ 농 협 401131-51-075952
국민은행 713701-01-140932 (예금주: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 동참해주신 건립기금은 소득세법 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제병원, 마하보디교육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TEL 052)264-1007 FAX 052)264-0209

홈페이지 <http://jungtoh.com>
전자우편 maha@cpebud.com

☼ 병들어 고통 받는 우리 이웃들의 평화로운 안식처 ☼

정토마을

충북 청원군 미원면 구녀산 자락에 위치한 정토마을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품안과 같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호스피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병들어 고통 받고 이웃으로부터 소외당한 환우에게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독립형 호스피스 요양센터입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환우에게는 성심을 다하는 간호와 돌봄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며 평화로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며, 환우가족에게는 사별간호를 통해 사별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토마을 운영

1. 대상 : 말기암 또는 이에 준하는 말기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우
2. 운영 : 축탁의, 간호사,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24시간 전인적 돌봄 제공

• 정토마을 이용 안내

1. 상담 ▶ 전화, 방문
2. 입소심사 ▶ 정토마을 입소기준에 의거 심사
3. 입소통보 및 입소

※ 복잡한 절차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오시는 길

- 서울 방향에서

중부고속도로 ➡ 증평 I.C. ➡ 청주, 내수
 ➡ 초정약수 ➡ 미원 방향 ➡ 정토마을

- 부산 방향에서

경부고속도로 ➡ 김천 J.C. ➡ 중부내륙고속도로 ➡ 낙동 J.C.
 ➡ 청원, 상주간 고속도로 ➡ 보은 I.C. ➡ 청주, 미원 방향
 ➡ 초정, 내수 방향 ➡ 정토마을



정토마을 호스피스 • 363-871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 T. 043)298-2258(대) / F. 043)298-1457
 홈페이지 <http://jungtoh.com/> 전자우편 hospice@cpebud.com

후원가족이 되어주세요!

♪... 사랑으로 주신 행복의 열매, 다시 나눔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밝은 행복으로 전달됩니다...♪

삶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고통 받는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 주실 후원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정토마을을 소개하고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시면 호스피스 환우들의 마지막 삶을 함께하는 정토마을은 물론, 병들고 가난하여 고통 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줄 시설의 건립과 운영에도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추원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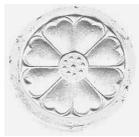
전화 한 통이면 빠르고 간편하게 후원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후원 방법 : 자동이체(CMS), 무통장입금, 지로입금, 물품후원, 복돼지 분양
- 후원 접수 : 전화, 홈페이지, 방문

농협 401120-51-016794
국민은행 713701-01-001909

예금주 :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 자동이체(CMS) 후원신청을 하시면 전화 한 통으로 신청, 변경, 해지가 가능하며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후원금을 납부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363-871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Tel. 043)298-2258(代)/Fax. 043)298-1457
홈페이지 <http://jungtoh.com/> 전자우편 jungtoh@cpebud.com

마하보디교육원 교육 안내

● 29기 불교전문 호스피스교육 안내

- 일 정 | 2009년 8월 2일(일)~8월 9일(일)
- 내 용 | 35개 전문과목을 통한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 대 상 | 스님, 포교사 및 불교인으로서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
- 교육비 | 59만원(학인 스님 20% 할인), 교재비 별도
- 문의처 | (043)298-2258, (052)264-1007

● 2009년도 여름학기 CPE교육생 모집 안내

- 일 정 | 2009년 여름학기(6월~8월) 총 8주간(매주 금요일)
- 내 용 | 임상에서의 총체적 돌봄을 위한 리더 과정
- 대 상 | 스님, 임상 현장에 종사하는 재가자(정원 6명)
- 문의처 | (052)264-0117, 010-3080-9922(수필)
※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CPE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2009년도 마하보디상담대학 안내

- 모집인원 | 25명(정원)
- 대 상 | 스님 및 포교사, 심리학·의료·사회복지를 공부하신 분, 경영 일선에 계신 CEO
- 장 소 | 경남 울주군 마하보디교육원
- 교육일정 | 정규과정 1년, 전문과정 1년, 특별과정 별도 구성
- 교육기간 | 매주 토요일, 연간 40주간 2년 과정
- 문의처 | (052)264-1080, (010)6424-3436(금강)

“법화경 천일기도 안내”

법화경 천일기도 독송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 은행 정례

● 기도접수 CMS(자동이체) 방법

- 인터넷접수 | <http://jungtoh.com>
- 전화접수 | 052-264-1007, 담당자 010-4444-5713
- 방문접수 / 우편접수 / 팩스이용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 전화 052)264-1007 / 팩스 052)264-0209
※ CMS는 은행에 가서 입금하시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는 편리한 자동이체 이용 방법입니다.

● 기도를 내는 방법

- 계좌이체 | 십만팔천(108,000) 원, 10회 / 오만사천(54,000) 원, 20회
- 일시불 | 백팔만(1080,000) 원(방문입금 및 통장 입금 가능)
- 3년간 | 매월 십만팔천(108,000) 원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 기도를 입금계좌 ☞ 농협 815039-55-003185, 예금주 (재)정토사관자재회

“삼천 송이 연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동행인으로 초대합니다.”

